

탐방 법륜불자교수회



법륜불자교수회의 제 17차 불국사 동계 수련대회.

불법탐구에 신심 '새록새록'

교수계는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해 권위를 인정받으나 다소 융화가 어려운 집단이다. 이런 곳에 모임을 형성, 10년째 신생활 등과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수불자회가 있다.

88년 창립 교수회원 150명 '산사의 음악회' 열어 호응 저술·특강 통한 포교 활발

(전문대학 포함)과 부산·경남의 2개대학 등에서 1백50여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가입하여 전리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있다.

연대회를 성만했으며 작년 7월에는 운문사 만세루에서 영남대 오케스트라의 협연하여 '산사의 음악회'를 개최하는 등 내실있는 신생활을 펼쳐왔다.

가르치고 연구하는 업(業)을 타고난 회원들은 종종 다른 모임에 법사로 초빙되며 불교관련 저술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봉선사 직장법회 수행도량 '각광'

서울근교 풍광좋은 고찰 '이집' 각종 수련대회·수계식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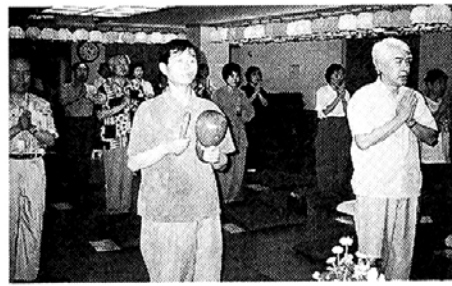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에 위치한 조계종 제 25교구 본사 봉선사(주지 밀운)가 직장·직능·학생법회의 인기 수행도량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월 7~8일 구리·남양주시 불교유치원교사 수련회에 이어 이달에만 해도 금음절제원불교회의 수련회 및 수계식이 14~15일, 광동고등학교학생회의 수계식이 22일, 동국대 불교대학학생회 새내기 오리엔테이션이 21~22일에 각각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는 서울지하철법우회 한국통신불자회 서울대학교 직원불교회 서초만야회 등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직장법회들이 거의 한 달 간격으로 수련대회나 사찰순례법회, 수계식 등을 개최해 왔다.

이밖에도 봉선사와 인연이 깊은 직장법회가 적지 않다. 문화방송불교연구회는 96년 7월, '좋은일 하는 사람들 모임'은 지난해 4월에 봉선사에서 각각 창립됐다.

국회보좌진법우회는 97년 5월 봉선사 조실 운경스님을 증명법사로 창립법회를 봉행했으며, 지난해 11월 창립한



한국불교연구원의 지난해 봉선사 여름수련회 장면.

경기도청불자회는 주지 밀운스님을 고문예 위촉했다. 또 지하철법우회는 봉선사 총무국장 화암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매월 법회에서 법문하고 있다.

이처럼 봉선사가 서울·경기지역의 수련도량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봉선사가 유서 깊은 고종본찰인데다 수행법사 등 법사스님이 많은 점 때문이다. 또한 서울 근교라는 지리적인 이점과 훌륭한 경치도 부담없이 찾을 수 있는 장점도 꼽힌다. (재)

"자비심엔 종교벽 없어요"

부산 자비사 천주교 영아시설에 위문품

부산 자비사(주지 삼중) 신도들로 구성된 신행모임인 동심회(회장 천재숙)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영아수용시설을 위문, 종파를 초월한 자비의 손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

동심회 회원 20명은 2일 오후 장애아 수용시설인 부산 감만동 소화영아재활원을 찾아 위문품을 전달하고 영아들과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회원들은 이날 1백만원 상당의 아동용 의류와 각종 물품 50만원 어치, 성금 50만원 등 모두 2백만원 상당의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장애아들과 게임을 하는 등 '일 부모' 역할을 했다.

장애아들은 회원들과 1시간 30여분 동안 함께 시간을 보내며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 해 회원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회원들은 앞으로도 소화영아재활원을 자주 찾아 뉘를 해 주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펼쳐기로 약속했다. 지난 96년말 결성된 동심회는 재소자 위문사업 등을 펼쳐왔다.

'종교연합' 가능성 진단 붓다클럽 '붓다 2호' 발간

붓다재주중앙클럽(총회장 홍재만)은 기관지인 '붓다지' 2호를 발간했다. 기획특집으로 '제주의 열과 전통 문화', '종교연합 가능성' 두 개의 주제를 다루었다. 특히 타종교의 이해를 위해 기획된 특집 '종교연합

가능성'에서는 △관효스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하여' △임문철신부의 '종교의 폭력성과 극복' △김삼근목사의 '자비와 사랑의 실천운동은 함께 할 수 없는가?' △장덕훈 원불교교무의 '원불교 안내' △한창영 교수의 '금강경과의 인연' 등이 실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 종교를 안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064)48-0108

"기독교 멘트" 사세고



금강경독송회 시판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는 경주 법당 불사금 마련을 위해 정성이 가득 담긴 '금강경 클래식 메주' 불사를 펼치고 있다(사진). 또한 금강경사 수좌들이 만든 이 전통 메주는 수자들이 <금강경>을 읽고 '기록존재불'을 정진하는 가운데 새벽 3시부터 가마솥에 콩을 삶아 나무통에서 손과 발로 직접 빻은 것. 휴집에서 피우고 태양 아래서 말려 천연 황곡균이 풍부. 한 말에 4만5천원. (02)742-0172



부산BBS 개국3주년 기념법회

불교부산방송(지사장 류진수)은 1일 방송국에서 개국 3주년 기념법회를 가졌다.

류진수회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더욱 발심해서 불법을 바르게 전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법회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불교대구방송 이사장 설초, 불교대구방송 사장 법타스님과 성낙승 불교방송 사장, 직원 등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스리랑카 독립 50주년 기념식

스리랑카대사관(대사 세레비나)은 4일 스리랑카 독립 50주년을 기념하는 리셉션을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었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통도사 부부장 청하스님, 진각종 성조 총리원장, 원용종 송보인 총무원장, 조동종 윤승정 총무원장, 주한 말레이시아 압둘 오마르인 대사, M.K 인터내셔널 정해정사장 등 5백여명의 내·외 축하객이 참여했다.



위안부 강덕경할머니 1주기 추모

나눔의집(원장 해진스님)은 2일 강덕경할머니 1주기 추모식 및 추모비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위안부 출신 할머니 20여명과 신문로포럼 유광언이사장,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박정기회장, 박종진 광주교수, 변용주감독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해진스님은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불교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

현대불교신문(사장 김광삼)은 지난달 24일 녹수청산에서 제3회 신행수기 공모 시상식을 가졌다. 법산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자필수기(종단원 사무총장) 진흥원 최명준교장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매림·이태순씨가 대상(유마상)을 수상했다. 한편 전·현 수상자들은 신행수기 당선자들의 모임 '신수회(가칭)'를 28일 오후5시 녹수청산에서 결성기로 했다.

우리 모임에선

거사림정법회 선방 개설

대구 거사림정법회(회장 이병수)는 지난 1월17일부터 매월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6~10시 거사림포에서 '법산스님의 시민선방'을 개설. (해탈도·홍종도선)의 저자인 법산스님은 남방불교의 수행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위빠사나명상을 대구에서 처음 소개하고 있어 지역 불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정회 전국 수련대회

서울·부산·대구·대전청정회(서울회장 강희명)는 2월 11일~15일 4박5일간 부산 청정선원에서 전국 수련대회를 가진다. 강정진 지도법사의 법문과 음미나비메를 육자대명왕진언 수련, 관법·염법·의심법에 대한 수련지도 등으로 진행된다. 청정회는 당초 서울로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직장인을 포함한 회원들이 늘어 모두 4백여명에 이른다. (02)880-8627

'좋은모임' 참선교실 개강

'좋은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장 원운스님)은 4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의정부시의 정부1동 법당에서 요가·참선교실을 개강.

요가는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인도 마드라스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변순미씨가, 참선은 광명사 주지 의선스님과 나영채법사가 각각 지도한다. 수강료는 무료. (0351)848-6114

성불회 재소자에 차례법회

안양교도소성불회(회장 변준연)는 1월28일 음력 설을 맞아 24명의 종교위원회 불교분과(위원장 현성스님) 소속 스님의 도움으로 전체 재

소자 3천5백명에게 떡국을 제공했다. 또한 29일 오전에는 마하사 주지 종원스님의 집전으로 부모님이 작고한 불자재소자 110명에게 차례법회를 봉행토록 해 뜻깊은 효도를 하게 했다. 40명의 성불회 회원들은 매월 차례법회를 열면서 5백여 재소자들에게 법문을 전하고 있다. (0343)52-2181

'부처님마음' 수계식

PC통신 '나우누리 부처님마음' (회장 박춘동) 회원 50명은 2월 7~8일 논산 안심정사(주지 법안)대웅전에서 수련대회및 수계식을 가졌다. 법안스님으로부터 입재식, 불교강좌,

참선 등을 지도받고 아침까지 근기에 맞게 1080배, 3천배 철야정진을 마친 후 함탑스님(지도법사)을 계사로 수계식을 가졌다. (051)722-6484

대불련 천리안에 모임마당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는 최근 전국 23개 지부 180개 지회의 정보교환을 위해 천리안에 '대불련 모임마당'을 개설했다.

이를 통해 상호 조직간의 활발한 의사소통과 회원 상호간의 친교의 장을 마련함은 물론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 'GO FAITH!'로 접속.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Table with 5 columns: 학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Rows include Buddhist Studies, Buddhist Education, Korean Language, Buddhist Art, and Buddhist Music.

- 2. 학교연혁: 1989 7.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불교대학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3 진흥부 주관 야간 2년제 개원, 91 8 불교대학 6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1 8 교육부 인명 37명취득,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유치원교사 2급 119명 자격취득, 93 2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 8 불교대학 42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9명 취득, 96 2 제4회 졸업생 배출, 96 3 진흥부 주관 야간 개원, 96 8 중국 남명 중앙대학교 불교과 개설, 96 11 불교대학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7 11 불교대학 37명 조계종 포교사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 2급보육교사자격 37명 취득(일반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98 2 제7회 졸업생 배출 예정, 98 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7명 취득 (일반교육 수료후), 98 2 동양화(韓畵)과, 동양풍속과 개설

11111-11111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FAX : 511-1080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대학

대원불교대학 학생모집

불교 대중화를 선도하는 대원불교대학이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25년 역사의 불교계 최초 전문교육기관, 교계 최고의 강사진, 모집학과 불교학과 출강과정 00명, 불교학부 00명, 강의시간 출강/통신 : 주5일 오후7시~8시30분까지, 교과목 : 주5일 수업, 지원자격 진실한 불자가 되고자 하는 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8년 2월 28일까지, 특전 : 졸업후 가. 포교당 개설시 상담지원 가능, 나. 소정의 법사고시를 거쳐 법사후 수여, 다. 포교당 개설시 법인의 보호를 받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로 문의바람.

대원불교대학 140-190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전화 : (02)776-7156, 773-9171, 754-1613 팩스 : 756-7258